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구현주* 강연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앙공동체로서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치며 삶으로 본이 되는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는 자녀 교육의 현장인 기독교 가정에서 성경적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성경적 성품 교육과 성경적 부모 교육을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C도시에 소재한 A기독교 대안학교와 B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15명씩을 무선 배치하였으며, 프로그램은 회기당 90분, 주 1회, 총 11회기로 진행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25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부모들의 양육 효능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의 영적 안녕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 양육의 현장에서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하고,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실천적인 연습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임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영적 안녕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 성품 교육프로그램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부모 교육,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 성령의 열매, 기독교 대안학교

* 온코칭 & 심리상담센터 소장, 제1저자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 이 연구는 고신대학교 구현주의 박사학위 논문(2024년 2월, 지도교수: 강연정)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가정은 신앙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場)이며,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자녀의 성품이 형성되는 최초의 학교이며 자녀들의 성장 발달과정에 따라 그에 알맞은 성품, 실력, 영적 성장과 전인적 기독교 교육이 실천되어야 하는 곳이다. 이러한 신앙교육의 기반 위에 든든히 세워진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정립되고, 성품을 갖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도 부모가 권위를 갖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하여 본이 되는 부모의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교육과 자녀 양육의 사명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신 6:6-7). 구약성경의 신명기 6장 쉘마의 말씀은 언약 교육의 최종 책임자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과 성품을 가르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언약 교육의 실행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일상 가운데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통한 성품의 변화, 자녀의 발달과정에 따른 객관적인 이해 및 자녀 교육의 현장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기독교 부모 교육을 강조했다. Luther(1983)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부모의 사명이며, 이러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alvin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경건한 삶이 본이 되어야 하며, 부모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경건한 삶이 본이 되어야 하며, 부모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교개혁 시대에 Luther와 Calvin과 같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Knox는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철저히 교육받아야 할 것임을 주장하기도 했다(이동규, 2015).

이와 같이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부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신앙과 영성, 성품과 가치관 등 부모가 자녀 교육에 미치는 많은 영향력 중에서 무엇보다 부모의 성품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부모 교육에서 성품을 훈련하기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이란 인격을 성숙하

게 하는 훈련과정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 없는 성품 교육은 윤리 교육, 율법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김원규, 2012). 따라서 기독교 성품 교육은 성화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한 훈련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뜻한다. 즉, 인간 본성의 변화를 말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듭남의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김희자, 2015). 이와 같이 전인적인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경건 생활의 훈련(discipline)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다(Cully, 1984).

또한 기독교 성품 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이라 한다면, 기독교 성품 교육의 목적 역시 인간 본성의 변화인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 과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김희자, 2015). 또한 Dykstra(1981)는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경건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며, 자녀의 성품 형성에 부모의 표정, 태도, 언어 및 비언어 등 부모의 성품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Dykstra(1984)는 성품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교사가 가르침의 본보기가 되며 학습자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성품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에 본이 되는 교사의 삶을 통해서 학생들이 존경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독교 교육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으며, 특히 성품 교육에 있어서 일상 가운데 삶으로 본이 되는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 성품 교육의 기준을 토대로 하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령기 아동을 둔 기독교 대안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성경적 성품 교육과 성경적 부모 교육을 위한 기독교 부모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부모의 양육 효능감 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그리고 부모의 영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현장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감 향상을 돕고자 하였다. 세 가지 척도를 선정한 이유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 안녕감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자녀 간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의 가르침과 가치관이 자녀에게 전수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부모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과 함께 자녀 양육의 현장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함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기독교 부모 성품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양육 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영적 안녕감 척도의 사전-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차후에도 기독교 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부모에게도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성품 교육의 원리와 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한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는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은 교육의 이념, 목적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삶의 철학을 새롭게 창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고병현, 1997). 우리나라에서의 대안교육의 시작은 1990년대에 이르러 해마다 성적 비관 및 일탈행위를 하는 등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인 성격의 대안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하태욱, 2020).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기독교 교육을 지향하는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복음주의자들은 학교에서의 기독교 신앙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며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실험 연구하였고, Calvin 사상에 영향받은 개혁주의자들은 미션스쿨과 구별하여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조성국, 2014).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위기와 한계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독교 대안학교는 공교육에 대한 대안교육로서의 성격과 함께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교를 의미한다(강영택, 2010). 따라서 기독교 대안학교는 지성, 영성이 통합된 교육으로서 학교 교육의 전 영역을 기독교적으로 접근하여(박상진, 2004),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지 못하는 미션스쿨에 대한 대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며, 대학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과정인 공교육에 대하여서도 대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2000년대 초에 시작되었는데, 기독교 교육 전문가인 교장과 교사, 그리고 부모들이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교육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조성국, 2021). 전체 교육과정은 신앙과 학문이 통합(統合)을 이루고 있으며 철저히 신본주의이며,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공교육과는 상반되는 이념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모든 교육 목적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김선요, 2004). 신앙교육, 성품 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학교로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공동체이다(총신대학교 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1998).

기독교 대안학교의 증가는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가치를 선택하는 부모들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박상진, 이종철, 2022). 이에 따라 기독교 대안학교는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흐름 속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며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며 세워가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의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 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적 사명이 이루어지는 기독교 가정이 되어야 하며, 신앙공동체로서의 기독교 가정은 부모와 자녀와의 일상의 관계 가운데서 교육의 장(場)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을 위해서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실시하

는 부모 교육을 통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모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김옥순(2002)은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부모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실시하는 부모 교육을 통하여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의 부모 교육에 있어서의 분명한 목적은 신앙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권위 있는 부모로서의 부모 자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모의 역할을 돕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 교육의 핵심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 신앙과 삶의 일치, 성품의 변화와 본이 되는 부모 역할, 자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학교와 가정의 연계성 그리고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의 부모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부모가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정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곧 부모의 영적, 지적계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건강한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정정숙, 1994).

또한 신앙공동체인 가정, 학교, 교회가 연합하여 삶의 연속선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협력해야 한다(김옥순, 2002). 특히 학교와 가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신앙공동체이자 교육공동체로서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이루어 다음 세대를 함께 양육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체계적인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사 중심의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가정에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실천 지향적인 교육을 적용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들로 세워야 한다.

위와 같이 기독교 교육의 장(場)인 학교와 가정에서는 서로 간에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야 하는데,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 역할을 자녀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자로서 부모 역할을 다하여 가정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2) 기독교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에 대한 고찰

기독교 가정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교육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교육공동체임과 동시에 부모의 신앙적 가르침을 통하여 자녀에게 가족의 전통과 신앙을 전수하는 일차적인 신앙 공동체이다(장신근, 20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인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부모는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기독교적 덕목들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자녀의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도일, 2015). 즉 기독교 부모란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여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조력자이며, 교사이자 상담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모는 언약 교육의 책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신앙교육과 성품 교육을 실천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은 말과 글로 지식을 전달하는 인지적인 방법이 아니라 본이 되는 부모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돕는 성품 교육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의 성품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성화의 삶은 성령 충만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이며, 외부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 즉 마음의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전인적인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인 경건 생활의 훈련(discipline)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다(Cully, 1984). 그러므로 기독교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적 권한 및 신앙적 모델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신앙교육과 성품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박상진, 2009).

Dykstra(1981)는 성품 교육에 대하여 설명할 때, 성품이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건 훈련과 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녀들은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며 부모가 바라보는 세상을 통해 동일한 세상을 보고,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므로 자녀의 성품을 형성하는 핵심 진리는 부모로부터 형성되며, 부모의 표정, 태도, 언어 및 비언어 등은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치고 전달한다는 사실과 함께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부모의 신앙과 성품, 영성과 가치관은 자녀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영성을 형성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우선하여 이뤄져야 한다. Habermas(2003)는 '쉐마'(신 6:1-9)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 부모가 언약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는 것과 가정환경을 신앙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부모의 영성 형성에 도움이 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부모의 영성(신 6:5) 형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세속적 가치관들을 분별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성품이 곧 기독교 성품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성품 교육이 되어야 하며,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성품이 함양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일상 가운데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이다(Damon et al., 2006). 그러므로 부모 교육은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의 성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가정에서의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을 실천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자녀 양육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루는 성품에 대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존재론적이고 통합적 의미로 해석된다(정대일, 2018).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기독교 성품 교육은 단지 행동의 변화를 위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김영희, 2012; 박선희, 2020; 김혜경, 2021).

무엇보다도 자녀를 가르치는 언약 교육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하고, 삶의 본이 되는 모델링(빌 3:17) 역할을 할 때 가정에서의 기독교 성품 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언약공동체인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속적인 성품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만 한다.

기독교 가정교육의 현장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자로서 부모의 역할과 성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독교 부모를 대상으로 기독교 성품을 교육하고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성품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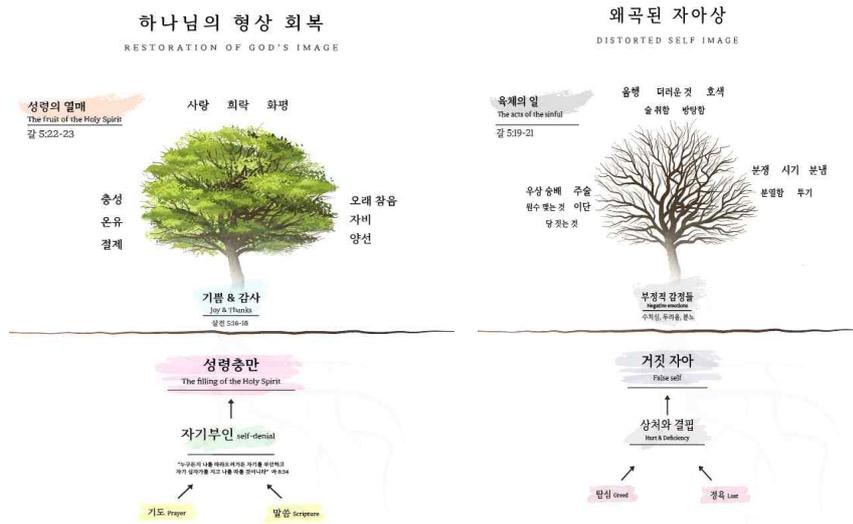
램은 많지가 않다(박진수, 2008; 김영란, 2017; 권요한, 2022). 물론 부모의 성품이 자녀 교육에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연구들은 이루어져 있다. 기독교적 부모의 역할이나 성품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부모 역할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채경선(2006)의 연구, 성경을 근거로 하는 상담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정희정(2009)의 연구, 그리고 영화치료를 활용하여 기독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한 고선옥(2020)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도 기독교 부모 교육에서 성품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으며, 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부모가 함양해야 하는 핵심 덕목으로 구성한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기를 성찰하고, 가정에서 일상가운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모 성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지고,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기독교적 성품으로서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기독교적 성품에 관한 논의는 성경의 다양한 장면에서 이야기된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의 회복 과정에서의 성품의 변화, 나아가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곳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이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23절에서 하나님 형상을 위하여 기독교인이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제시하며 육체의 일과 대조하여 설명하였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인격적인 특성으로 (벧후 1:4-8) 성령의 도우심과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성령의 역사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맺히는 열매이다(장원철, 2004). 바울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며(갈 5:16),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즉,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하여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 연구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 연구 모형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love)은 ‘아가페(agape)’ 사랑이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의 대표성을 갖는다. 사랑이 없이는 나머지 8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사랑 안에서 나머지 열매들이 성취된다고 말할 수 있다(강용원, 2015). 둘째, 희락(喜樂, joy)은 즐거움과 기쁨 그 자체를 의미하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의미한다. 희락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Morgan, 2014). 셋째, 화평(和乎, peace)은 히브리어로 ‘shalom’, 헬라어로 ‘에이레네(εἰρήνη)’이며, 안전과 평화를 의미한다. 신약에서는 ‘평안’, ‘평강’으로 번역되고 있다. 화평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리는 참된 평화의 상태를 말한다(유경동, 2014). 넷째, 인내(忍耐, patience)는 그리스어 ‘마크로뒴미아’(makrothumia)로서 우리말 신약성경에서 ‘오래 참음’으로 번역되었다. ‘마크로’(makro)는 ‘오래, 멀다’, ‘투미아’(thumia)는 ‘성질, 분노’를 의미하며, ‘분노까지의 거리가 먼 모습’을 의미한다(한영철, 1997). 또한 오래 참음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반대의 개념으로 ‘안절부절 못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IBLP-Korea, 2016). 다섯째, 자비(慈悲, kindness)는 히브리어 ‘헤세드’이며, 사랑, 불쌍히 여김, 친절을 뜻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친절한 성품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반영(Sanders, 1970)이다. 여섯째, 양선(goodness)은 호의를 뜻하는 헬라어 ‘아가도스’(αγαθός)에서 파생된 말로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행위를 지속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각자의 은사를 부지런히 개발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Barclay, 1978). 일곱째, 충성(忠誠, faithfulness)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이다. 또한 충성은 원어 상으로 ‘피스티스’, ‘믿음’을 의미하며, 믿음이 있는 자가 자신의 맡겨진 직분에 신실하게 헌신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충성의 열매이다(임영효, 2012). 여덟째, 온유(溫柔, gentleness)는 마음과 행동이 부드럽고 친절함을 나타낸다. 온유는 절제된 힘으로써 복수나 보복의 욕구 없이 모든 무례를 수용하여, 겸손하고 너그러운 자세를 의미한다(MacArthur, 1987). 마지막으로 절제(節制, self-control)는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절제는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벽으로써 인내하지 못하는 탐욕의 적들이 우리 마음을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Morgan, 2014).

이러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항상 동시에 열매 맺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 성, 불순종, 게으름, 자기 중심성의 영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씩 소유하고 가꿀 수 있는 분리된 성품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유기체적인 전체를 향해 함께 자라가는 성령의 열매를 말한다(이한수, 2009). 또한 성령의 열매들은 서로 내적으로 연결되고 보완됨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는 유기체의 성격을 나타내며, 하나의 줄기 속에서 펼쳐지는 열매들이며 성령의 역사로 맺어진다(강용원, 2015).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며 함께 자라가며, 서로를 강화한다(Christopher, 2017).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성품들이다. 그러한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에도 회복이 일어나며, 또한 개인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됨으로써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인간 본성의 변화이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듭남의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하여 영국 복음 전도자이자 설교자였던 Stott(1992)는 “20년간 나는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인용해 보고, 그것이 나의 삶에 이뤄지도록 기도해 왔다.”라는 말로써 성령의 열매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협력할 때 삶 가운데 저절로 맺히는 열매이며, 열매가 자라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실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Morgan, 2014). 이와 관련하여 Packer(2010)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하였다.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성품 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일상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맺히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를 향한 여정에서 기독교적 성품의 정수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실천할 때 비로소 맺혀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원리

본 연구는 성경적 부모 교육과 성경적 성품 교육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성경적 성품으로서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그 핵심이 되는 기독교 부모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경적 부모 교육을 개발 원리로 삼았다. 시대가 변화될수록 새롭게 등장하는 수많은 가치 체계가 나타나며, 그러한 가운데 무분별한 가치관과 가치관의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과 그 책임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기독교 부모 교육은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적 자녀 양육의 첫 부분은 교육(instruction)이다.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교육

은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쁘게 양육해야 하며 또한 자녀 양육의 동기는 인간적인 동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한다(이소희, 1999). 또한 자녀의 신앙교육은 무엇을 인지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으며 자녀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together)이 중요하다(양금희, 2011).

둘째, 성경적 성품을 기반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품 교육은 지속하여 변화와 성장하는 삶 즉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성경적 가치관을 토대로 하며,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 경건 훈련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경적 성품 교육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배운 것을 실천하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골 1:9-10).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배운 것을 합당하게 이행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권면하였는데, 이러한 기독교 성품 교육의 핵심 내용이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이다(갈 5:22-23).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며, 각 개인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의 주어진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절대적인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이므로 따라서 기독교 성품 교육에서의 교육과정을 이루는 핵심 내용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되어야 한다. 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절대적 순종을 실천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를 말한다(김희자, 2015).

셋째,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적 관점을 토대로 하여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의 자세이며(송인규, 2008), '거듭난 사람'의 세계관 즉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의미한다(이승구, 2018). 자녀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세계관 변화야말로 자녀들에게 더욱 확실하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으로서의 삶의 본이 된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

나는 가치관과 그로 인한 행동적 특성인 성품을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성품 교육을 위해 우선시되어야 할 선결 과제는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내면화되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곧 성품의 열매이며, 기독교 성품의 토대가 되는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성품을 실천하는 근거가 된다.

2)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은 기독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므로, 이러한 인간 대상 교육과정 개발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모형을 근간으로 하는 김창대의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은 문헌 연구, 목적 및 목표 수립, 내용 구성, 예비 연구, 수정 및 보완, 실행 및 평가의 6단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프로그램 개발 절차		주요 내용
1단계	문헌 연구	•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		
2단계	목적 및 목표 수립	•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수립
↓		
3단계	내용 구성	•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사
↓		
4단계	예비 연구	• 예비모임 및 집단의 구조화 • 프로그램 실험 모형 실시
↓		
5단계	수정 및 보완	•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 프로그램 완성
↓		
6단계	실행 및 평가	• 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효과 검증

(그림 2)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

(1)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성경적 성품 교육과 성경적 부모 교육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 부모 성품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 신앙교육, 기독교 부모 교육, 부모 성품 교육, 기독교적 성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기독교 세계관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관련 문헌을 검색하고 본 연구의 방향과 목적에 맞는 문헌을 선정하고 이를 심층 고찰하였다.

(2)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수립

본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본이 되는 부모 역할을 위하여 신앙교육과 성품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독교 부모들을 위한 효과적인 부모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삶으로 본이 되는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는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기독교 성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부모의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하에 기독교인 부모를 대상으로 기독교 부모 교육이론과 성품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3) 프로그램 내용 구성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1회기 90분, 주 1회기, 총 11회기로 진행되었으며 도입 부분은 회기마다 기도와 찬양,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부분에서 기도로 마쳤다. 본 연구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 교육과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독교 성품 이론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실시하는 기독교 부모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본이 되는 부모의 삶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자녀 교육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2차에 걸쳐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2차에 걸쳐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으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사가 이루어졌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5명의 전문가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내용타당도 요청을 허락한 전문가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 1명, 기독교 상담심리 전문가 1명, 기독교 교육학 교수 1명, 기독교 부모 교육 전문가 1명, 기독교 상담학 박사 1명이었다.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회기별 CVI 값과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에서의 CVI 값이 0.8 이상으로 나왔으며, 각 회기의 제목, 목표,

성경 구절과 강의, 활동 등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및 보완하였다.

(4) 예비 연구

본 연구에서는 B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12명을 대상으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기간은 2023년 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주 2회 90분 기준으로 총 11회기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도움받은 부분 및 개선점들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부분들과 함께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5) 수정 및 보완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전체적인 피드백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목적이 기독교 대안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아버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 가운데 어린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를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내용을 인지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강의 이후 나눔(share)의 시간에 최대한 활발한 나눔을 위하여 적절한 질문을 수정, 보완하고,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6) 실행 및 평가

예비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후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3) 프로그램 도출

본 프로그램은 총 11회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회기에서는 기독교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과 부모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2회기부터 10회기까지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각각의 성품에 대하여 마지막 11회기에서는 성품 교육을 실천하는 부모 역할과 본이 되는 삶에 대한 강의 및 나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 내용

회기	주제	활동 목표	프로그램 내용
1	사전 검사 및 기독교 부모 역할과 성품 교육에 대한 이해	1. 부모 역할과 성품 교육의 중요성확인 2. 기독교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관 확립	- 프로그램의 목적 및 주제 소개 - 가정에서의 실천적 교육인 성품 교육 -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의 중요성
2	하나님과과의 관계에서의 성품 사랑 (love)	1. 사랑의 성품에 대한 이해 및 기독교적 정체성 확립 2.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부모 역할 습득	- 시작 기도 - 성령의 열매 '사랑'의 의미 - 사랑의 다양한 표현 방법 - 마무리 기도
3	하나님과과의 관계에서의 성품 희락 (joy)	1. 희락의 성품에 대한 이해 및 삶에서 누리는 희락에 대한 이해 2. 성경적 가치관을 통한 희락의 삶에 대한 이해	- 시작 기도 - 성령의 열매 "희락"의 의미 - 상황에 관계하지 않는 기쁨 - 마무리 기도
4	하나님과과의 관계에서의 성품 화평 (peace)	1. 화평의 성품 및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강에 대한 이해 2. 화평을 본보이고 실천하는 부모역할	- 시작 기도 - 성령의 열매 "화평"의 의미 - 가족이 실천해야 하는 화평의 성품 - 마무리 기도
5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성품 오래 참음 (patience)	1. 오래 참음의 성품 및 말, 행동, 태도에서 나타나는 인내의 성품에 대한 이해 2. 용납, 용서, 오래 참음을 살 가운데 실천 하기	- 시작 기도 -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의미 - 오래 참음의 실천과 성령의 능력 - 마무리 기도
6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성품 자비 (kindness)	1. 자비의 성품 및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주시는 은총에 대한 이해 2. 자비의 삶을 본보이고 실천하는 부모 역할 습득	- 시작 기도 - 성령의 열매 "자비"의 의미 - 헤세드 은혜를 실천하는 자비의 성품 - 마무리 기도
7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성품 양선 (goodness)	1. 양선의 성품 및 양선을 행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이해 2. 양선을 본보이고 실천하는 부모역할 습득	- 시작 기도 - 성령의 열매 "양선"의 의미 - 선을 행하는 이타적인 삶 - 마무리 기도
8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성품 충성 (faithfulness)	1. 충성의 성품 및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2. 자녀양육의 사명을 맡은자로서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 시작 기도 - 성령의 열매 "충성"의 의미 - 사명자의 삶과 충성의 성품 - 마무리 기도
9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성품 온유 (gentleness)	1. 온유의 성품 및 관계 치유와 영적회복을 위한 성품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2. 온유의 삶을 본보이고 실천하는 부모 역할 습득	- 시작 기도 - 성령의 열매 "온유"의 의미 - 관계 치유와 영적 회복을 위한 온유 - 마무리 기도
10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성품 절제 (self-control)	1. 절제의 성품에 대한 이해 및 성령의 능력 안에서의 절제 2. 절제의 성품이 필요한 삶의 영역	- 시작 기도 - 성령의 열매 "절제"의 의미 - 삶에서 요구되는 절제의 영역들 - 마무리 기도
11	사후 검사 및 소감 나눔	적용과 실천: 양육자로서의 성품의 변화	- 시작 기도 - 성화의 삶과 자기 부인의 실천 - 마무리 기도

3.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 광역시에 소재한 기독교 대안학교인 A 대안학교의 초등과정에 자녀가 재학 중인 기독교 학부모로 하였다. 초등학생의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한 근거는 인간 발달적 특성 및 부모와의 관계 등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부모-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부모의 양육 효능감, 의사소통 방법 및 영적 안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건강한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함께한다는 점에서 초등생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는 Cohen(1988)의 G-power 3.1.9.7 프로그램에 의한 예상 표본 수를 산출하였으며 양측성 t-test 분석을 통해 유의수준 $\alpha=.05$, 효과 크기로 Large= .5, 검증력을 .80으로 설정한 결과 실험집단, 통제집단 각 12명씩 총 24명이 계산되었다. 이에 2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험집단 12명, 통제집단 12명으로 무선 할당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실험집단(n=12)	통제집단(n=12)
		실수(%)	실수(%)
성별	남자	1(8.3)	0(0.0)
	여자	11(91.7)	12(100.0)
연령	30-39세	0(0.0)	6(50.0)
	40-49세	11(91.7)	6(50.0)
	50-59세	1(8.3)	0(0.0)
초등학생 자녀 수	1명	0(0.0)	2(16.7)
	2명	10(83.3)	7(58.3)
	3명	2(16.7)	3(25.0)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로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사전-사후 통제 집단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의 차이와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비교하여 실험 처치 효과를 파악하였다.

〈표 3〉 사전-사후 실험설계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사전 조사	실험 처치	사후 조사
실험집단	O ₁	X	O ₂
통제집단	O ₃		O ₄

O₁ : 실험집단의 양육 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영적 안녕감 사전 검사

X :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 실시

O₂ : 실험집단의 양육 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영적 안녕감 사후 검사

O₃ : 통제집단의 양육 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영적 안녕감 사전 검사

O₄ : 통제집단의 양육 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영적 안녕감 사후 검사

3) 측정 도구

(1) 양육 효능감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87)이 개발하고, 박지현(2014)이 수정 및 변안한 양육 효능감 척도(PSOC: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 9문항, 부모의 불안감과 좌절감 4문항, 부모의 역할에 대한 흥미와 관심 3문항의 총 3개 하위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으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하위요인별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 .75, 부모의 불안감과 좌절감 .85, 부모의 역할에 대한 흥미와 관심 .76으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하고, 민하영(1992)이 수정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이 각각 10문항이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표기된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더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폐쇄형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10

개 문항은 역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8으로 나타났다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개방형 .77, 폐쇄형 .81으로 나타났다.

(3) 영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 영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하고, 박지아(2002)가 수정·보완한 영적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종교적 안녕 10문항과 실존적 안녕 10문항의 2개 하위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구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며, 하위 영역의 종교적 안녕감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0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종교적 안녕감 .80, 실존적 안녕감 .83으로 나타났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Window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하여서는 빈도 분석을 통해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 대하여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양육 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영적 안녕감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대표적 비모수 통계인 Mann-Whitney U test를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다.

5) 분석 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검사 동질성 검증

부모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양육 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영적 안녕감에 대하여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의 사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부모의 전체 양육 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z = -1.273$, n.s.).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동질성이 검증되었다($z = -1.826$, n.s.). 부모의 영적 안녕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동질성이 검증되었다($z = -1.881$, n.s.).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구분	집단	n	M(SD)	z	p
양육 효능감	실험	12	3.10(.37)	-1.273	.203
	통제	12	3.31(.58)		
부모-자녀 의사소통	실험	12	3.24(.36)	-1.826	.068
	통제	12	3.57(.47)		
영적 안녕감	실험	12	3.73(.51)	-1.881	.060
	통제	12	4.13(.45)		

6)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결과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비모수 통계분석의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1)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성품 교육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 효능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간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사전 검사의 평균 3.10($SD=.37$)점, 사후검사 평균 4.13($SD=.28$)점으로 평균 1.02($SD=.35$)점이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사전 검사의 평균 3.31($SD=.58$)점, 사후검사 평균 3.30($SD=.508$)점으로 평균 .02($SD=.31$)점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평균 점수 변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995$, $p<.001$). 이는 성품 교육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 효능감의 증진에 있어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양육 효능감에 대한 차이 검증

집단	n	사전-사후 차이				Mann-Whitney의 U	z
		M(SD)	평균차	평균 순위 (순위 합)			
양육 효능감	실험	12	사전 3.10(.37)	1.02	18.25	3.000	-3.995***
		사후 4.13(.28)	(.35)	(219.00)			
	통제	12	사전 3.31(.58)	-.02	6.75		
		사후 3.30(.50)	(.31)	(81.00)			

*** $p<.001$

(2)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 차이 간 평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먼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전체 점수에 관한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 간 차이의 평균은 $.70 \pm .32$, 통제집단은 $.02 \pm .33$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두 집단의 사전-사후검사에서의 점수 변화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 = -3.412, p < .001$).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차이 검증

집단	n	사전-사후 차이			Mann-Whitney의 U	z	
		M(SD)	평균차	평균 순위 (순위 합)			
부모-자녀 의사소통	12	사전	3.24(.36)	.70(.32)	17.42 (209.00)	13.000	-3.412***
		사후	3.93(.29)				
통제	12	사전	3.57(.47)	.02(.33)	7.58 (91.00)		
		사후	3.59(.43)				

*** $p < .001$

(3) 프로그램이 부모의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부모의 영적 안녕감 사전-사후 검사의 점수 차이 간 평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먼저 부모의 영적 안녕감 전체 점수에서 실험집단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점수 간 차이의 평균은 $.67 \pm .37$, 통제집단은 $-1.00 \pm .46$ 로 나타나 실험집단은 사전보다 사후 검사에서의 점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 간 변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z = -3.612, p < .001$).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영적 안녕감에 대한 차이 검증

영적 안녕감	집단	n	사전-사후 차이			Mann- Whitney의 U	z	
			M(SD)	평균차	평균 순위 (순위 합)			
영적 안녕감	실험	12	사전	3.73(.51)	.67	17.71	9.500	-3.612***
			사후	4.4(.30)	(.37)	(212.50)		
	통제	12	사전	4.13(.45)	-1.00	7.29		
			사후	4.03(.49)	(.46)	(87.50)		

***p<.001

III. 닫는 글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신앙공동체로서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치며 삶으로 본이 되는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는 자녀 교육의 현장인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성품 교육을 통해서 부모 역할을 위한 효과적인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아동을 자녀로 둔 기독교 대안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성경적 성품 교육과 성경적 부모 교육을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의 양육 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영적 안녕감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 및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의 핵심 성품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중심으로 기독교 부모 성품 교육프로그램으로 최초로 개발되었다는 것과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한 성품 교육을 가정에서도 부모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되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에서의 핵심 내용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바울의 서신 중 하나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제안하는 기독교인의 성품으로서 하나님과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태도와 연관된 성품으로는 사랑, 희락, 화평을 들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성품으로는 오래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성품은 충성, 온유, 절제의 성품이다(Stott, 1994).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2회기에서 10회기에 이르기까지 각 회기마다 한 가지의 열매 즉 한가지의 성품에 대하여 집중하여 다루었으며, 각 회기의 영성, 덕성, 지성의 영역마다 다양한 활동, 나눔을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들을 습득하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과제로는 성품 칭찬 일지를 기록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여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하는 성품 교육을 가정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진행한 가정과 연계된 성품 교육의 실천에 대한 부분에서는 심은혜(2008)의 연구에서 주장하였던 부모와의 성경적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써 치유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칭찬, 인정, 격려 등의 언어를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독교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육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성품 교육 내용이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써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 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실시 후 부모의 양육 효능감 점수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통해 기독교 부모로서의 성품을 함양하고 이를 실제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해 보는 실천의 삶을 훈련받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양육 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같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이 부모 자녀와의 소통과 효능감의 긍정적인 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던 류재연(2019)의 연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의 자존감과 양육 효능감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던 류청한과 어주경(2014)의 연구, 부모교육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나눔을 통하여 부모 자신을 탐색하며, 자기성찰의 시간이 갖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연구(서은주, 이현림, 2008; 노은하, 2020)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때,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노혜란, 김상옥, 2020)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품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양육 효능감 증진은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존재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게 된다. 먼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을 받는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확립하며, 자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와 기쁨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양육 효능감이 증진되었다는 사실은 부모의 양육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질적인 변화는 곧 성품의 변화이며 가족 간 관계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부모가 기독교적 성품을 함양하여 이를 자녀를 양육하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부모 역할의 수행 시 중요한 양육 효능감의 증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그 하위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 폐쇄형 의사소통 점수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향은, 1999; 황정희, 2008; 배희분, 2014; 고경미, 2015)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기독교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현림, 류현정, 김지혜, 2007; 고선옥, 2020)는 연구, 기독교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대화가 향상된 것을 보고했던 이숙미(2009)의 연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부모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이희숙, 주용국, 이봉숙, 2014)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경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자녀와 의사소통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던 김연호(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기별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성품 주제로 하여 가정에 실제 자녀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성품 칭찬 노트를 제공하고 자녀의 성품에 대한 칭찬한 실재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실제 실험집단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품 칭찬을 실천할 때 자녀와의 관계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성품을 칭찬받은 아이는 부모로부터 수용을 받는 경험과 함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독교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은 부모가 성경적 성품을 함양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부모 삶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도록 돕고, 이와 함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실천적 연습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영적 안녕감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부모의 영적 안녕감 및 그 하위요인인 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 점수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은 기독교인 부모의 영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데 있어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기독교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실제 내면화하고 실천할 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영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효과검증이 이뤄진 선행 연구가 매우 희소하여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성품 교육을 통한 영적 작업 프로그램이 인성뿐 아니라 영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던 이계능과 황기철(2016)의 연구, 기독교인들의 인성과 영성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던 김성원(2021)의 연구, 하나님 형상 회복을 성품으로 보고, 이것이 영적인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김성원(2019)의 연구,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프로그램이 영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을 밝힌 최은희와 구본용(2021)의 연구, 자애나 절제, 초월 등의 강점이 영적 안녕감의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박미하(201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종교적 안녕감 및 영적 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배은주, 2016; 오윤선, 2020)와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영적 안녕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고선옥, 강연정, 2020)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같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성품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은 성화의 과정으로서 개인의 영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품의 변화와 함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모 성품 교육의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영적 안녕감을 증진하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은 기독교 부모들의 양육 효능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의 영적 안녕감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

하고,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그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제한하였는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지속되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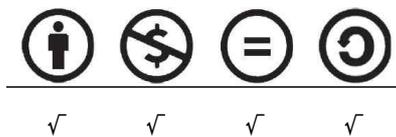
둘째, 본 연구는 기독교 대안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주일학교 부모 및 일반 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품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부모를 위한 성품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앞으로 기독교 성품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논문 투고일: 2024년 05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4년 07월 05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7월 10일



【참고문헌】

- 강영택 (2010).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신앙과 학문**, 15(1), 31-58. <http://dx.doi.org/10.30806/fs.15.1.201003.31>
- 강영택, 박상진, 박혜진, 조성국 (2021). **기독교학교 운동사**. 서울: 씬이 있는 교육.
- 강용원 (2015). 기독교 인성교육의 성경적 기초. **기독교교육논총**, 47, 361-398.
- 고경미 (2015). PSWS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부모효능감 및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병현 (1997). **교육개혁운동으로서의 대안교육운동**.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고선옥, 강연정 (2020).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복음과 상담**, 28(1), 51-83. <http://dx.doi.org/10.17841/jocag.2020.28.1.51>
- 권요한 (2022). 성경적 성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도일 (2015). 가정과 교회의 유기적 관계 회복을 통한 신앙교육. **선교와 신학**, 36, 11-45. <http://dx.doi.org/10.17778/cwmpu.2015.2.11>
- 김선요 (2004).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의 협력을 위한 기반탐색. **통합연구**, 17(1), 104-126.
- 김성원 (2019). 하나님 형상 회복으로서의 성품과 기독교 대학에서의 실천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總神大論叢**, 39, 429-456.
- 김성원 (2021). 기독교대학생이 인식한 가족건강성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성의 매개효과. **기독교교육정보**, 69, 105-131.
- 김연호 (2003). 기독교 가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모교육 방안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2017). 한국형 12성품 교육을 바탕으로 한 부모성품 교육프로그램이 부모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2012). 교회와 가정 연계를 통한 성품 교육프로그램: 공도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원규 (2012). 성령의 열매를 통한 어린이 품성교육의 기독교적 이해.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옥순 (2002). 한국 기독교대안학교에서의 부모교육 모델 연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연구**, 13(1), 153-179.

- 김향은 (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자 (2015). 개혁주의 기독교 성품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35, 43-64.
- 김혜경 (2021). 전인적 기독교 인격교육을 위한 '성경 7효' 제안 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은하 (2020). 학령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부모적응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교류분석상담연구**, 10(2), 43-65. <http://dx.doi.org/10.35476/taca.2020.10.2.43>
- 노혜란, 김상욱 (2020). 부모상담이 양육효능감과 양육죄책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4(2), 57-78. <http://dx.doi.org/10.22590/ecee.2020.24.2.57>
- 류재연 (2019). 부모교육이 부모효능감과 정서적 표현 변화에 미치는 효과: 교류분석에 기초한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교류분석상담연구**, 9(1), 149-169. <http://dx.doi.org/10.35476/taca.2019.9.1.149>
- 류청한, 어주경 (2014).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자존감, 양육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효과 연구: 취학전 발달장애아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2(1), 1-28. <http://dx.doi.org/10.21479/kaft.2014.22.1.1>
- 민하영 (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13(1), 112-124.
- 박진수 (2008). 학령기 부모를 위한 성경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하 (2013). 성격 강점과 영적 안녕감과 관계: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4(3), 1517-1533. <http://dx.doi.org/10.15703/kjc.14.3.201306.1517>
- 박상진 (2004). 지성과 영성을 통합하는 기독교학교교육. **장신논단**, 22, 373-397.
- 박상진 (2009). 한국 교회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회, 가정, 학교의 연계를 통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20, 53-83. <http://dx.doi.org/10.17968/jcek.2009..20.002>
- 박상진, 이종철 (2022). **기독교대안학교의 미래를 고민하다**. 서울: 씬이 있는 교육.

- 박지아 (2002).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 간의 관계: 적응유연 청소년, 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 (2020). 기독교부모의 생태체계가 학령기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희분 (2014).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이 가족식사환경,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은주, 이현림 (2008).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 연구**, 9(3), 1117-1135. <http://dx.doi.org/G704-000726.2011.18.2.011>
- 송인규 (2008).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서울: IVP.
- 심은혜 (2008). 성경적 의사소통을 통한 전인치유 프로그램 연구.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아이비엘피코리아(IBLP-Korea) (2016). **진정한 성공의 길, 성품 가정 세우기**. 서울: IBLP 편집부.
- 양금희 (2011). **기독교 유아·아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오윤선 (2020). 기독 중년 남성을 위한 행복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영적 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복음과 상담**, 28(2), 135-162. <http://dx.doi.org/10.17841/jocag.2020.28.2.135>
- 유경동 (2014). **기독교 영성과 윤리**. 서울: 한국문화사.
- 이계능, 황기철 (2016). PIPES 인성교육모델에 기반한 영적 작업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영성과 인성변화에 미치는 영향. **신앙과 학문**, 21(4), 51-74. <http://dx.doi.org/10.30806/fs.21.4.201612.51>
- 이동규 (2015). **전인적 기독교 교육**. 서울: 밀알서원
- 이소희 (1999).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아동발달과 양육**. 서울: 도서출판 CUP.
- 이숙미 (2008).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구 (2018).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우리들의 기도. **신학정론**, 36, 297-331.
- 이한수 (2009). **복음의 정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서울: 솔로몬.
- 이현림, 류현정, 김지혜 (2007). MBTI를 활용한 적극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2), 533-547.
- 이희숙, 주용국, 이봉숙 (2014). 이음부모교육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부

- 모의 정서적 공감능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치료 학회**, 6(2), 267-287. <http://dx.doi.org/G704-SER000003939.2014.6.2.005>
- 임영효 (2012). 영적 지도력이 본질로서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연구. **고신신학**, 14, 357-422.
- 장신근 (2011). **공적 신앙을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장원철 (2004). 목회자의 성경적 의식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목회상담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대일 (2018). 교회학교 아동부 성품 교육 커리큘럼 연구: 소망교회 아동부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정숙 (1994).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 정희정 (2009). 성경적 상담을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국 (2014).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학교의 미래과제. **기독교교육논총**, 38, 1-26. <http://dx.doi.org/10.17968/jcek.2014..38.001>
- 채경선 (2006). 기독교 부모의 자기성장을 기반으로 한 부모역할 증진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은희, 구분용 (2021). 기독교적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기독교 중년여성의 비합리적 신념,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발달연구**, 2(4), 52-66.
- 총신대학교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1998). **기독교학교 왜 필요한가**. 서울: 새한기획출판부.
- 하태욱 (2020). **대안교육 100년을 내다보며, 대안교육 20년을 말한다**. 민들레 편집실 편. 서울: 민들레.
- 한영철 (1997). **성령의 열매에 관한 주석적 연구**. 서울: 알돌기획.
- 황정희 (2008).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의사소통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rclay, W. (1978). *Flesh and spirit*. London: Hymns Ancient & Modern Ltd.
- Christopher, J. H. W. (2017). *Cultivating the fruit of the spirit: Growing in*

- Christlikeness*. Westmont, IL: InterVarsity Press.
- Cully, I. V. (1984).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 New York: Harper Collins.
- Damon, W., Lerner, R. M., Renninger, K. A., & Sigel, I. E. (2006).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Dykstra, C. R. (1981). *Vision and character*. Mahwah, NJ: Paulist Press.
- Dykstra, C. R. (1984). **비전과 인격** (이기문 역, *Vision and character*).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원전 1981 출판).
- Habermas, R. T. (2003). *The family as a context for spiritual formation*. In K. O. Gangel & J. C. Wilhoit (Eds.). *The Christian educator's handbook on spiritual forma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Luther, M. (1983). **루터선집 9: 그리스도교 학교를 건립 운영하도록 호소한 글** (지원용 역,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서울: 키클디아사. (원전 1958 출판).
- MacArthur, J. (1987).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Galatians*. Chicago: Moody Press.
- Morgan, E. (2014). **내 마음의 열매 가꾸기** (김영실 역, *Naked fruit*).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원전 2004 출판).
- Packer, J., & Stibbs, A. M. (2010). *The spirit within you*.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 Sanders, J. O. (1970). *The holy spirit and his gifts*. Grand Rapids, MI: Zondervan.
- Stott, J. R. W. (1992).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Stott, J. R. W. (1994). **예수님의 산상설교** (김광택 역, *Christian counter-culture*). 서울: 생명의말씀사. (원전 1978 출판).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s of the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the
Parents of the Alternative Schools**

Gu, Hyun Ju* Kang, Yeon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to help them to play the biblical parental role through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n the field of children's education area which requires parents' role to serve as a role model and to teach their children biblical values in Christian family which is a faith community. To this end, this paper developed a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program and a biblical character education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targeting the parent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with school-age children, and verified its effectivenes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verified that the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the parents of alternative schools is proven to be effective for the Christian parents' nurture efficacy sense,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s' spiritual well-being. Therefore, this study implies that the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helps them to improv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by providing practical practices, and to enhance their spiritual well-being by living a life of sanctification revealing God's character along with a transformed life bearing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with their identity as God's child.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 parents education,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ruits of the Holy Spirit,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 On Coaching &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 Director

** Kosi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 Professor